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5.26

미 증시,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한 연준의 영향으로 상승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부진한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발표한 덱스 스포팅 굿즈(+9.69%)로 인해 재 부각된 경기 침체 이슈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 특히 견고한 실적 발표한 기업과 최근 하락폭이 컸던 일부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 물론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해 장중 매물이 출회 되기도 했지만, 연준이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자 재차 상승폭을 확대되며 마감(다우 +0.60%, 나스닥 +1.51%, S&P500 +0.95%, 러셀2000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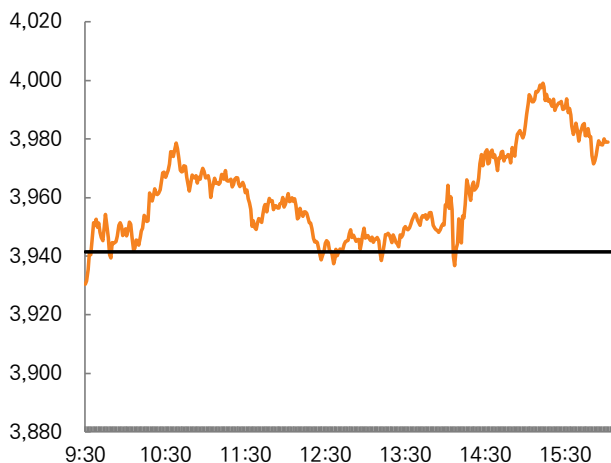
특이 종목

- 테슬라(+4.88%)는 테슬라의 배터리 연구 그룹에서 10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고 에너지 밀도 배터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자 급등. 아마존(+2.57%)은 AWS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의 각국 정부 계약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엔비디아(+5.08%)는 실적에 대한 기대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장 마감 후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가이드언스가 예상을 하회하자 큰 폭 하락. 소프트웨어 업체인 인튜이트(+8.21%)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드언스 발표로 급등.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14%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4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66.0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4% 상승. KOSPI는 보험권 출발 예상
- 미 증시에서 연준이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여기에 전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실업률을 빠르게 낮춰야 하며 현재 경제 상황은 팬데믹 초기보다 어려운 국면” 이라며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도 우호적.
- 그러나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 러시아와 중국 영향으로 가이드언스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자 큰 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이 여파로 여타 미국 기술주들이 시간 외로 하락하고 있어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 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보험권 출발 후 반도체 업종의 변화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617.22	+0.44	상해종합	3,107.46	+1.19
KOSDAQ	872.69	+0.88	홍콩항생	20,171.27	+0.29
DOW	32,120.28	+0.60	베트남	1,268.43	+2.84
NASDAQ	11,434.74	+1.51	유로스톡스 50	3,677.10	+0.81
S&P 500	3,978.73	+0.95	영국	7,522.75	+0.51
캐나다	20,383.75	+0.48	독일	14,007.93	+0.63
일본	26,677.80	-0.26	프랑스	6,298.64	+0.7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변화 요인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한 경기 침체 우려 완화

최근 시장은 개별 기업들의 실적 결과를 놓고 ‘경기 침체’ 이슈를 부각시키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그런 가운데 오늘은 닉스 스포팅 굿즈(+9.69%)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올해 전망을 하향 조정하자 관련 우려가 재 부각되며 장 초반 하락을 불러옴. 그렇지만 장기 사업 전략과 수익성 유지에 대해 자신감을 표명했던 점, 최근 하락이 이어져 왔던 점을 감안 장 초반 11% 급락을 뒤로하고 한 때 14% 넘게 급등하자 전반적인 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임

여기에 백화점 업체인 노드스트롬(+14.02%)과 의류 업체인 익스프레스(+6.72%)가 견고한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발표하며 급등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최근 시장 변화를 야기시켰던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불확실한 경제의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업들의 대처 실패로 해석. 이는 ‘경기 침체’ 이슈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해석하며 여행, 레저, 항공 등을 중심으로 상승

이런 가운데 연준이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2분기 GDP는 ‘견고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특히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과 산업생산은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와 우려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 점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물론,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확신은 없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봉쇄는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주장한 점은 부담을 주며 잠시 매물이 출회 되기도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의 화두는 ‘경기 침체’ 였기 때문에 관련한 긍정적인 연준의 언급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장 마감 후 엔비디아(+5.08%)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46.3% 급증하며 시장 예상을 상회하고 EPS 또한 예상을 상회한 결과를 발표. 그러나 가이드언스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 봉쇄로 약 5억 달러 규모의 매출 감소를 감안 하향 조정하자 시간 외로 큰 폭 하락. 이 여파로 주요 기술주가 시간 외로 하락하고 있어 전반적인 시간 외 선물 하락 가능성을 높임

다만, 이미 많은 부분 알려져 있던 점이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사업이 무려 83%나 성장을 한 점을 감안 관련 우려가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오늘 미 주식시장에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여부에 주목.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엔비디아, 장 마감 후 가이던스 부진으로 큰 폭 하락

테슬라(+4.88%)는 테슬라의 배터리 연구 그룹에서 10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고 에너지 밀도 배터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자 급등. 아마존(+2.57%)은 AWS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의 각국 정부 계약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엔비디아(+5.08%)는 실적에 대한 기대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장 마감 후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회하자 큰 폭 하락. 디스 스포팅 굿즈(+9.69%)는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하향 조정으로 11% 급락하기도 했으나, 장기 전망에 대해 여전히 견고하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급등. 백화점 업체인 노드스트롬(+14.02%)은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자 급등.

의류 업체인 익스프레스(+6.72%)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올해 매출 전망도 상향 조정하자 강세. 또 다른 의류 업체인 어반 아웃피터(+15.45%)는 비용 증가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예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비용 증가를 촉발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소프트웨어 업체인 인튜이티브(+8.21%)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로 급등. 서비스나우(+7.78%)를 비롯한 여타 소프트웨어 업종도 동반 상승. 고급주택 건설업체인 톨 브라더스(+7.97%)는 견고한 실적 발표 후 강세. DR호튼(+5.13%) 등 여타 건설업종도 동반 상승.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연준의 경기예측에 대한 자신감 표명은 부킹닷컴(+4.74%) 등 여행주, 메리어트(+4.53%) 등 호텔, 카니발(+3.57%) 등 크루즈, 디즈니(+1.64%) 등 레저 업종의 강세를 견인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4.02	대형 가치주 ETF (IVE)	+0.68
에너지섹터 ETF (OIH)	+1.85	중형 가치주 ETF (IWS)	+1.32
소매업체 ETF (XLY)	+2.82	소형 가치주 ETF (IWN)	+1.91
온라인소매 ETF (EBIZ)	+3.72	대형 성장주 ETF (VUG)	+1.29
금융섹터 ETF (XLF)	+0.80	중형 성장주 ETF (IWP)	+2.11
기술섹터 ETF (XLK)	+1.17	소형 성장주 ETF (IWO)	+2.03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2.71	배당주 ETF (DVY)	+1.02
클라우드 ETF (CLOU)	+3.03	신중국 고배당 ETF (DEM)	+0.34
미국 리츠 ETF (VNQ)	+0.85	신중국 저변동성 ETF (EEMV)	+0.28
주택건설업체 ETF (XHB)	+3.52	미국 국채 ETF (IEF)	+0.20
바이오섹터 ETF (IBB)	+0.17	하이일드 ETF (JNK)	+1.52
헬스케어 ETF (XLV)	-0.03	물가연동채 ETF (TIP)	+0.08
곡물 ETF (DBA)	-0.50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1.03
반도체 ETF (SMH)	+2.08	모멘텀 ETF (MTUM)	+1.44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경기소비재	1,107.37	+2.78	-0.65	-20.44
에너지	650.62	+1.96	+5.28	+16.07
IT	2,331.05	+1.21	+1.03	-8.43
통신	191.66	+0.88	-1.89	-8.57
금융	567.34	+0.80	+2.97	-5.80
산업재	773.54	+0.64	+0.11	-7.05
부동산	272.78	+0.56	+4.03	-11.26
소재	525.95	+0.47	+2.17	-2.03
필수소비재	760.84	+0.04	+2.05	-8.45
헬스케어	1,526.67	-0.02	+2.54	-2.63
유틸리티	374.38	-0.06	+3.24	-0.07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도체 업종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14%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4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66.0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4% 상승. KOSPI는 보합권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나스닥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 낙폭을 크게 축소했던 점을 감안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상승. 특히 외국인의 KOSPI200 선물 순매수에 따라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수급적인 부분도 긍정적. 더 나아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과 경제 봉쇄 완화에 힘입어 중국증시가 강세를 보인 점도 우호적. 이에 힘입어 KOSPI는 0.44%, KOSDAQ은 0.88%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장 초반 개별 기업의 실적 발표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기는 했으나, 연준이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특히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 관련 이슈는 수출 대형주에 대한 투자심리에 우호적. 여기에 전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실업률을 빠르게 낮춰야 하며 현재 경제 상황은 팬데믹 초기보다 어려운 국면”이라며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도 긍정적.

그러나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 러시아와 중국 영향으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자 큰 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이 여파로 여타 미국 기술주들이 시간 외로 하락하고 있어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 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물론, 클라우드 관련 부문은 큰 폭 성장을 하고 있어 관련 기대 심리가 부각되는지 여부에 주목하며 한국 증시는 보합권 출발 후 반도체 업종의 변화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글로벌 기관 투자자, 위험자산 매입

미국 내구재 주문은 지난달 발표(mom +0.6%)나 예상(mom +0.5%)을 소폭 하회한 전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핵심 자본재 주문은 지난달 발표된 1.1%나 예상치인 0.5%를 하회한 0.3% 증가에 그침

스테이트 스트리트 투자자 신뢰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92.3보다 개선된 97.1로 발표. 북미 지역이 5.0p 상승한 99.1로 발표되었고 아시아 지역도 1.6p 상승한 93.1로 발표. 유럽은 8.7p 하락한 67.5로 발표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국제유가, 수요 증가 기대로 달러 강세 불구하고 상승

국제유가는 중국의 경제 봉쇄 완화 및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상승. 여기에 드라이빙 시즌을 맞아 가솔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상승 요인. 한편, EIA에서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많은 102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한 점도 상승 요인. 그러나 높아진 가솔린 가격에 대해 정부의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로 상승폭은 제한

달러화는 경기 침체 이슈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연준이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6월 50bp 인상을 시사하는 등 금리인상 속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됐지만 2분기 성장에 대한 자신감 표명으로 상승폭은 축소. 유로화는 최근 상승에 따른 되돌림이 유입되며 하락. 특히 ECB위원인 Knot가 올해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자 약세폭이 컸음. 파운드화는 ‘파티 게이트’ 이슈로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에도 달러 대비 강세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부진과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다만, 주식시장이 강세폭을 확대하고 연준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으로 하락폭이 축소. 특히, 50bp 금리인상 기초를 재 확인하자 금리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마감 했는데 대체로 보험권에서 등락을 보임. 한편, 5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43배)과 비슷한 2.44배를 기록해 영향은 크지 않음

금은 달러 강세 및 주식시장 강세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러시아의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곡물은 밀이 러시아가 인도주의적 통로를 흑해에 개설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출 기대로 하락. 옥수수는 중국이 브라질산 옥수수를 수입 협상 진행 소식과 파종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자 하락. 대두도 예상보다 파종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자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71%, 철근은 0.80%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10.33	+1.00	+3.58	Dollar Index	102.160	+0.30	-1.59
브렌트유	114.03	+0.78	+4.89	EUR/USD	1.0675	-0.57	+2.02
천연가스	8.97	+2.11	+7.34	USD/JPY	127.32	+0.39	-0.71
금	1,852.50	-0.69	+1.98	GBP/USD	1.2576	+0.35	+1.90
은	21.87	-0.31	+2.09	USD/CHF	0.9623	+0.23	-2.62
알루미늄	2,874.00	-0.95	+0.58	AUD/USD	0.7088	-0.25	+1.91
전기동	9,373.00	-0.85	+1.49	USD/CAD	1.2816	-0.02	-0.57
아연	3,750.50	-1.06	+3.60	USD/RUB	60.2665	+5.99	-6.37
옥수수	772.25	-0.13	-1.38	USD/BRL	4.8226	+0.06	-2.94
밀	1,148.25	-0.43	-6.58	USD/CNH	6.7112	+0.81	-1.02
대두	1,681.00	-0.80	+1.01	USD/KRW	1,264.60	-0.13	-0.16
커피	217.05	+1.59	-0.25	USD/KRW NDF1M	1,266.00	+0.37	-0.8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756	+0.53	-12.81	스페인	87.934	-2.59	-4.41
한국	3.181	-2.10	-13.40	포르투갈	95.945	-2.49	-5.30
일본	0.213	-2.40	-3.20	그리스	84.947	-5.65	-1.88
독일	0.952	-1.50	-7.80	이탈리아	82.939	-2.41	-0.9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